

목표 이루기



에리카 에이, 8세, 가나 중앙 지역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도와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저는 모음과 자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는 글을 아주 잘 읽어요.

저는 이제 여덟 살이 되었어요. 저는 물문경과 『친구들』 잡지를 읽는 걸 좋아해요. 저는 『친구들』에서 침례 성약에 대해 읽으며 침례를 준비했어요. 침례를 받던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교 회장님, 감독님은 제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감독님은 제가 물문경에서 무얼 배웠는지 매주 물어봐 주세요. 또 저는 『어린이 지도서』에 나온 대로 목표를 세웠어요. 매일 경전을 읽고, 자주 기도하고, 하루 두 번 이를 닦고, 『친구들』 잡지에 나오는 활동을 하는 것도 저의 목표 중 하나예요.

저는 오빠와도 함께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는 스테이크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합창단에서 가장 어린 단원이예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좋아요.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

